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

2024. 6.

팀장: 경영지원부 인사팀 박민웅

팀원: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권애영

팀원: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이유경

2024년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

시드니 인 메이(호주, 시드니)팀 해외견문체득훈련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 활동 개요 및 주요 성과

《 활동 개요 》

- 훈련 기간: 2024. 5. 17. ~ 5. 25. (7박 9일)
- 견문 지역: 호주(시드니)
- 훈련참여자: 박민웅, 권애영, 이유경

○ 주요 성과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호주(시드니)의 선진 공공시스템 학습
- 노상주차 · 교통 서비스 개선정책 학습
- 고령인구 고용정책 학습 및 사례연구

□ 향후 계획

- 부천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진 정책 접목 시도
- 문화 · 관광 서비스에 대한 고령인구 고용정책 접목 시도

I 해외전문체육훈련 일자별 내용 및 시사점

【1일차】

- (인천공항 - 시드니공항 이동)

【2일차】

- (시드니 타운홀 방문)

- 시드니 타운홀은 1880년에 고양식으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시드니 대표 관광 건축물 중 하나이며, 시계탑이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임. 특히 처음에 지어진 양식대로 기존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임
- 특징적으로, 우리나라 시청의 개념과는 다르게 여러 대관용 공간과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북카페, 도서관 등의 공간이 있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
- 호주는 2024년 현재 노령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나이를 인상시키는 등 고령인구 근로장려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호주에서 노령인구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3일차】

- (패딩턴 마켓 방문)

- 폴리마켓 명소 중 하나인 패딩턴 마켓을 방문
- 호주의 폴리마켓 또한 우리나라의 폴리마켓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돈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 인상적
- 마켓 주변에 무인 결제시스템 노상주차장이 정돈되어 있어 차

량 및 보행자 혼잡도가 심하지 않아 주변 상점과 식당들을 이용하기에 쾌적함

【4일차】

○ (코리아타운 및 차이나타운 방문 및 트램 이용)

- 라이트레일(트램)이 지나는 거리 주변에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이 자리잡고 있음
- 패디스마켓, 퀸빅토리아빌딩, 시드니 시청 등 주요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이용하기에 공간 접근성이 좋음
- 차이나타운의 경우 시드니 다른 거리에 비해 혼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청결하며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 인도 및 안내표지판 등이 알아보기 쉽게 정돈되어 있음
- 시드니 항만에서 페리, 버스 및 트램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함
- 트램은 별도의 게이트가 없어 자율적으로 승하차가 가능하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였음.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넓게 점유하고 상대식 정거장을 적용하고 있으며 휠체어, 유모차 등의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도보 및 트램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출입구 및 도보 연석 등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5일차】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방문)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거대한 산맥으로 케이블카, 레일카, 스카이웨이 등의 관광 기구로 재개발하여 훌륭한 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했다는 인상을 줌

- 시드니 근교 관광의 핵심 장소로 자리 잡았으며, 인위적인 자연 환경 개발이 아닌 보존적 환경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힘
- 특히 레일카의 개발로 호주 옛날 광산의 역사와 광부들의 이용 흔적들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 소재가 되고 있음

【6일차】

○ (오페라하우스, 서큘러 키 페리터미널 일대 방문)

-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손' 에 의해 디자인된 세계적 건축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호주의 랜드마크임
- 1973년에 개관하였으며 1600여석의 오페라 극장과 2700여석의 음악당을 비롯한 여러 극장, 전시관, 도서관이 있음
- 수많은 무광택 타일이 붙여진 건축물로 항구, 항만도시의 배경과 어울리도록 수 척의 함선의 디자인을 갖고 있음
- 랜드마크로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 환경을 연계시키고 강화시키는 훌륭한 관광 자원의 역할을 갖고 있음

【7일차】

○ (하버브릿지, 보타닉가든 방문)

- 북시드니와 남시드니를 연결하는 하버브릿지는 주변 항구, 항만, 오페라하우스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임
-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광 목적의 활용을 위해 전망대를 위치시키는 등 훌륭한 관광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드니 도시 안에 위치한 왕립 식물원인 보타닉가든 1800년대에 조성된 곳으로 시드니 내에 위치한 공원 중 가장 큰 규모임
- 10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큰 공원이기 때문에 관광객 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고, 주변 관광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계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

- 도보로 이동하며 인근의 노상주차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구간별로 무인 결제시스템 기기가 놓여 있어 주차 이용이 용이함
- 도로 구간별로 결제기기와 함께 안내표지판도 상세히 설치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안내표지판만 확인한다면 주차 시스템에 대한 혼동을 줄일 수 있음

【8일차】

○ (시드니 대학교, 달링하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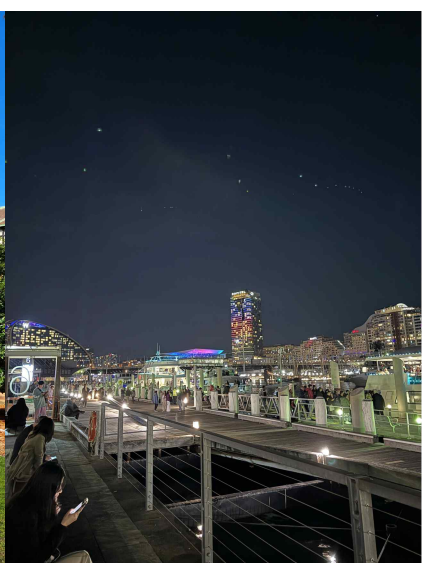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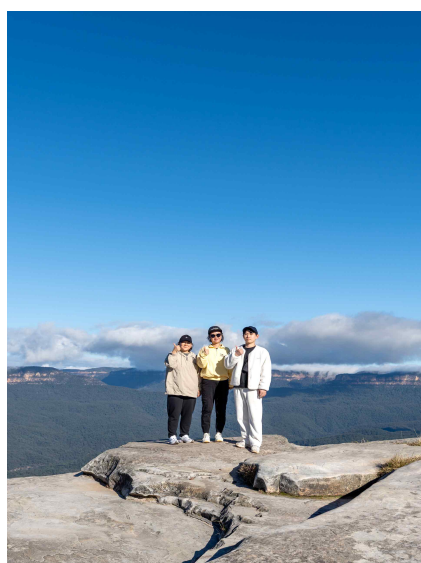
- 시드니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학 중 하나이며, 개교 당시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입학할 수 있는 국립 대학 설립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건립됨
- 각종 지표에서 세계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로 평가됨
- 달링하버는 이전에 많은 발전소와 조선소가 존재했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후 관광자원으로서 시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개발되었음. 모노레일을 운행하여 관광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불꽃놀이, 레이저 쇼, 도시야경 축제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음
- 인근에는 쇼핑센터, 박물관, 아쿠아리움, 극장 등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의 시설이 자리잡고 있음

【9일차】

○ (시드니공항 - 인천공항 이동)

II

해외전문체육훈련 사진 및 소감



○ 박민웅: 호주 주차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현 상황과는 다르게 인구밀도도 낮았으며, 가구당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주차량도 적었다. 라이트레일 운영 또한, 호주는 라이트레일이 먼저 운영되는 도중에 승용차량 운행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현황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판단이 되어 정책 비교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장을 다니면서도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노령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였으며, 노인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노령인구 고용정책에 있어서 호주는 중앙정부 이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호주는 노령인구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또한 확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 및 기업,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의 노령인구 근로 확장에 함께 힘쓰고 있다. 이번 해외견문체득훈련을 통해 호주의 각종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및 부천시 정책에 도움이 될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 권애영: 시드니에서의 주차사업은 도심 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주차 공간을 예약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장의 운영, 보안, 유지보수, 요금 관리 등을 담당하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도심의 모든 노상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인식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에서는 매년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므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시드니의 문화적 풍부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드니의 상징적 건축물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장 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인정받고 있다. 시드니는 친환경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지만 대중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

진하고,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수단 버스, 트램, 페리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다. 도시 내에는 녹지공간과 공원이 보존되어 있으며, 도심 주변에는 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산책할 때도 맑은 공기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부천시에도 도심 속 호수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유지시키고 보호해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이유경: 시드니 CBD(Sydney Central Business District, 상업중심지구)는 환경 보호와 차량 밀집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주차 요금을 많이 부과하며 일방통행길이 많고 길이 복잡하며 트램이랑 walk path를 만들면서 못 들어가는 길도 많아졌고 주차장이 많지 않아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편이다. 시드니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되어 있어 사실 구글지도와 트래블월넷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큰 도시에 공해없이 새소리가 들리고 깨끗한 길거리를 거닐다보면 오감이 즐거워지는 반면에 한없이 부럽기도 했다. 건강한 자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시 정책으로 이루어진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블루마운틴 산맥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비교적 발길이 드문 블루마운틴 북쪽 부근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1시간거리에 있는 시드니시티가 보일 정도로 하늘이 깨끗했고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던 모습이 인상에 남는다. 정말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자연환경을 잘 보존시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천시에서도 원미산, 도당산, 소래산 등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된다면 멋진 조망을 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